

자신을 옹호하는 소년과 아직 서로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정명은 먼저 말을 건넸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김지용이에요. 형은요?"

"유정명. 반갑다."

"저도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개고생을 함께하는 처지니 반갑다는 말이 썩 어색하진 않았다.

적당히 분위기도 풀렸으니 정명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너 형이랑 파티..."

"네 할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끊으며 들어오는 김지용의 승낙에 살짝 놀랐지만 정명은 티를 내지 않았다.

'뭐지 이 녀석. 날 같은 길드원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어딘지 모르게 기대감에 찬 지용의 눈을 바라보니 어미 잃은 강아지에게 간택받은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저 그런데 형. 혹시 화신길드 길드마스터 맞으세요?”

그제야 지용이 무슨 착각을 한 건지 확인한 정명은 고
민에 빠졌다.

‘화신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나.’

정명이 실각한 후에도 화신길드는 줄곧 길드랭킹 1위를
지키며 게임내 최고의 명문으로 불려왔다.

그러므로 지용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는 보기보다
랭킹이 꽤 높은 편이라는 뜻이 됐다.

만약 지용의 질문에 맞다고 답한다면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쉽게 깨어질 수도 있었다.

생각을 마친 정명은 마음을 굳혔다.

“아니. 난 길드없어.”

“아... 정말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셔서 제가 착각했네
요.”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느라 바쁜
지용을 보며 정명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다. 화신.’

허나 이제 막 자신의 파티원이 된 지용에게까지 과거의 악감정을 이유로 나쁘게 굴 필요는 없었다.

나이대를 봐선 당시의 사건과는 무관할 게 분명했으니까.

“괜찮아. 그것보단 지금부터 살아남을 궁리나 하자.”

“네 형!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용의 해맑은 대답을 들으며 정명은 퀘스트 창을 열었다.

[시나리오 1. 콜로세움 - 협동퀘스트]

500마리의 고블린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 승리조건: 고블린 진영 전원 살해
- 패배조건: 후보생 진영 전원 사망

생존자 현황

- 후보생: 298/500
- 고블린: 446/500

‘고블린 54마리가 죽는 동안 우리는 벌써 200명 좀 넘게 죽었어!’

예상보다 훨씬 나쁜 전황에 혀를 차며 정명은 생각에 잠겼다.

주변을 둘러보니 후보생의 무리들이 원을 그리며 중앙에 모여있고 그 주위를 고블린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부터는 우리 쪽이 더 교환비를 높게 가져가야만 이길 수 있어. 그러려면 최대한 빠르게 십장들의 수를 줄여야 해.’

고민과 함께 고블린들의 진형을 관찰하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방패 든 십장들 열 마리가 한 조로 전면에 나서고 병사들이 그 뒤에서 전열을 갖추는 모습이었다.

전체 고블린 숫자가 500마리이므로 십장은 50마리쯤 될 것이고 지금 남은 수도 족히 마흔은 넘어 보였다.

아마도 저 십장들의 분대를 일시에 돌진시켜 후보생들의 진영을 붕괴시킬 계략 같았다.

‘만약 십장들이 대열을 갖추고 방패로 밀고 들어오면 다른 후보생들이 막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일대일 상황에서 방패돌진의 추진력을 역이용하여 성공시킨 도박에 가까운 공격을 때를 지어 벌이는 전투에서 후보생들이 쉽게 재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후보생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 둘씩 각 무리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였다.

하지만 일사분란하게 대열을 갖추는 고블린들과 다르게 후보생들은 각자의 길드 또는 짧은 시간 동안 급조된 인맥을 중심으로 뭉치느라 여전히 수 십 개의 덩어리로 분열된 상태였다.

‘지금으로선 오러를 가진 내가 십장고블린들의 수를 최대한 줄여 놓는게 그나마 승산이 있어.’

정명은 준비된 계획을 지용에게 말했다.

“잘 들어 지용아. 지금부터 우린 십장고블린 전담조가 되는 거야.”

그러자 지용의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

“네? 십장고블린 전담조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고블린 병사만 상대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십장고블린만 골라서 죽이는 거지.”

정명의 작전을 들은 지용은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응 해볼만 해.”

정명은 마치 원래부터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듯이 능숙하게 오리를 발현했다.

그러자 게임 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자주빛의 오리가 신이한 빛을 발하며 조악한 녹슨 검의 주위를 감쌌다.

‘특성을 얻은 것만으로 오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다니.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룻밤사이 이능력을 얻은 것에 속으로 감탄하는 정명을 본 지용의 눈이 튀어나올만큼 커졌다.

“오... 오리에요 그거? 진짜로요?”

“맞아. 이거면 고블린 놈들의 조악한 나무방패 정도는 종이 썰듯 베어버릴 수 있을 거야.”

정명이 제안한 작전이 근거 있는 것임을 확인한 지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해볼게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지용을 보며 정명은 꽤 괜찮은 팀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했다.

물론 팀이라해도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정명은 팀워크에 필요한 정보만 우선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일단 가장 높은 스탯부터 알려줘. 난 힘이야.”

“전 체력이요. 원래 탱커 유저라서 그런 가봐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녀석이 탱커가 주 캐릭터일 정도면
얻어걸린 것 치고는 수확이 좋았다.

“내가 십장고블린들을 상대하는 동안 고블린 병사들이
다가오는 걸 막아줘.”

“음. 알겠어요. 그럼 제가 형의 등을 지켜야겠네요.”

그 자리에서 지용은 창을 부채꼴로 휘두르며 둘러싼 적
들을 견제하는 시늉을 했다.

고블린 병사들 여럿을 묶어둘 정도는 되어 보였다.

“그래 그렇게. 이해가 빠르구나 너.”

“헤헷. 저 이래보기도 공대장도 몇 번 해봤다니까요.”

한 편 정명이 지용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동안 두 사람
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으니.

고블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옆에 떨어진
상들리에에서 무기만 챙긴 채 모래바닥에 엎어져 죽은
척을 했던 여대생 안소혜였다.

‘진짜 오러잖아? 저 파티에 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소혜는 프롬타뉴의 반지를 할 때 암살과 암기가 컨셉인 도적을 특히 좋아했다.

그럼에도 처음 상태창이 열렸을 때 자신의 스텟이 민첩에만 15나 찍혀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게임에서야 쏟아지는 적들의 공격을 회피하며 근접해 단검을 찔러넣는 전투스타일이 매력있지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진 않았기에.

그녀는 일단 죽은 척을 택했던 것이다.

‘이제와 받아달라하면 손가락 얻는 그림이지만 뭐 일단 살고 봐야지.’

마음을 굳힌 안소혜는 모래를 털고 일어나 대화를 나누는 정명과 지용이 있는 곳으로 망설임없이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그 쪽 파티에 제가 끼도 될까요?”

갑자기 다가온 낯선 이를 본 정명과 지용은 그녀의 한 쪽 손에 쥐어진 짐승의 발톱처럼 굵은 단검부터 확인했다.

무기라곤 구경조차 못하고 죽은 사람도 허다한 마당에 무기를 구한 후보생이 먼저 무리에 받아달라고 하는 건 이쪽에게도 이득일 터.

물론 승낙을 내린 건 당연히 정명이었다.

“네 좋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안소혜예요. 그 쪽은요?”

안소혜는 새로 들어온 인턴사원처럼 정명과 지용을 향해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며 이름을 밝혔다.

자신과는 다르게 붙임성이 상당한 인물이라 생각한 정명은 그녀가 잇속 계산이 빠른 편일 거라 생각했다.

“유정명입니다.”

“김지용이에요.”

통성명을 마친 걸 확인한 정명은 소혜의 활용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소혜씨는 가장 높은 능력치가 뭔가요? 저는 힘이고 여기 이 친구 지용이는 체력이에요.”

“저는 민첩이요. 도적 유저였는데 그쪽들은 검사나 창기사 유저였던 거 같네요.”

자신이 속한 파티의 능력을 가늠한 소혜는 어색한 기색이라곤 없이 말을 이었다.

“그럼 파티장님 우리가 살 길이 뭔가요?”

“우리가 십장고블린들만 골라죽이는 전담조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소혜의 낯빛이 어두워 졌다.

아무래도 동아줄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걸 능숙하게 감추지 못한 것이다.

허나 정명은 아랑곳 않고 그녀의 역할을 지시했다.

“소혜씨가 할 일은 간단해요 여기 지용이를 도와서 제 뒤를 지켜주기만 하면되요. 위험하게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저, 정말이죠? 파티장님은 그동안 어떻게하시게요?”

정명은 불안해 하는 소혜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다.

“전 십장 놈들부터 싹 다 베어버릴 겁니다.”

* * *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전투의 재개를 알리는 뿔피리 소리가 정명의 파티와 마주한 십장고블린들의 대열 뒤편에서 울려 퍼졌다.

고블린 병사들이 어깨에 짊어진 가마 위에 앉아 높게 검을 들어올리고 뿔피리를 불어대는 그 고블린은 다른 십장들과는 다르게 투구에 붉은 칠 뿐 아니라 황금테까지 둘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정명은 놈이 이곳에 나타난 모든 고블린들의 우두머리인 족장임을 기억해냈다.

‘족장 고블린이 저 놈이구나. 먼저 십장들을 다 쳐내고 나서 저놈의 맥을 따면 완벽히 승기를 잡을 것이다.’

방패로 몸을 가린 채 발을 맞춰 다가오는 십장고블린들의 대오를 보며 정명은 앞으로의 전투를 머릿속에 그렸다.

정명의 파티 근처엔 다른 후보생들의 파티가 몇 개쯤 있었지만 그들은 정명의 파티와 달리 다가오는 십장고블린 대열을 보며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저것들이 한 번에 돌진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일단 다른 파티랑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가득한 시선들을 향해 다시 한 번 족장고블린의 뿔피리가 울려퍼졌다.

“끼이잇! 끼이이이이이이잇!!!”

“끼이이이이이이이이잇—!!!”

마치 인간의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복명복창하듯 족장 고블린의 지휘에 맞추어 단체로 기합을 내지른 십장 고블린들은 곧바로 사방에서 후보생 진영을 향해 방패 돌진을 시작했다.

땅이 진동하는 소음과 함께 몰려드는 고블린 진영과 마주한 후보생들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솟구치던 그때.

정명이 검을 움켜쥐고 앞으로 걸어갔다.

‘어차피 내 앞의 십장고블린은 열 마리 뿐이다. 그 놈들만 베어버리면 돼.’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후보생 파티들은 정명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허나 정명은 곧 걸음을 멈춘 채 금세 거리를 좁혀오는 십장 고블린들을 향해 자세를 곧게 하고 몸 앞에 검을 바로 세웠다.

그리곤 정신을 집중하여 검에 마력을 흘려보낸다.

어김없이 검을 감싸는 오러를 느끼며 정명은 달려드는 십장고블린들을 직시했다.

‘오러가 씩워진 검은 경지가 높아지면 질수록 무엇이든 종잇장처럼 벨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던 방패를 든 고블린 놈들이던.’

차분히 적들이 자신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던 정명은 공격범위 안으로 다가온 방패의 벽을 향해 검을 가로로 크게 휘둘렀다.

좌아아아아악—!!!

덮쳐오던 방패의 벽 중 정명과 가까운 다섯 개의 방패가 오리를 썩은 검격 한 번에 쪼단처럼 베어졌다.

홀로 자신들과 대적하는 멍청한 인간을 비웃던 고블린 십장들은 같은 대오를 이루던 동료 절반이 핏덩이로 변해 바닥에 구르고 나서야 상황을 깨달았다.

“키이이이이잇?!!”

본래라면 자신들의 단체 방패돌진에 부딪혀 바닥을 굴렀어야 할 적이 섬뜩한 자색섬광에 휩싸인 검을 들고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 불가해한 상황.

소득없이 목표물을 지나쳐버린 5마리의 남은 십장고블린들은 정명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고블린 병사들 역시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군대가 고작 적 하나를 상대로 당황하는 꼴을 본 족장고블린은 다급해져 뿔피리를 부는 것도 잊고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대충 ‘대체 뭘하고 있느냐!!!’며

아랫것들을 들볶는 중일 거라 생각하며 정명은 남은 십
장들을 향해 검을 돌렸다.

그리곤 나직이 뇌까렸다.

“너흰 여기서 한 놈도 못살아 나간다.”

- 4. 콜로세움 (2), 끝 -